

지역 매아리

완주군, 공공비축미 수매
오늘부터 20일까지 개시

완주군이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 1,500톤 가량의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수매한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미품이며 농가 편의
를 위해 수확 후 바로 건조·저장시설
에서 매입하는 산물 벼 2만1,500포는 오
는 15일까지 매입한다. 수매 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품종검정
제도와 관련해 타 품종이 20%이상 혼입
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농가
에 중간정산금 3만원을 지급하고, 최종정
산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연이은 태풍으로 벼 도복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품질 낮은
쌀의 시중 유통 및 농가 손실을 보전하
고자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피해 벼 전
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해벼의 매입은 품종제한 없이 가능하
지만, 흑미·녹미 등 유식미 및 가공용
품종은 제외되며,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 2만원을 지급하고, 나
머지는 공공비축 매입가격 최종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4일 김제
시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
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예방교
육을 연회 이상 실시함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전직원 의무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
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전달
하였다. 아동학대신고는 112로 하면 된
다. 이날 김경환 강사(굿네이버스 전북본
부장)는 아동에게는 4가지 기본권(생존
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음을 강
조하면서 본인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접
한 아동학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직
원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도
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신체적 학대, 정
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이라는 아동학
대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
함으로써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5일 김제 벽골제에서 열렸다.

첨단 농업의 미래를 열다

김제시,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
는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5일
김제 벽골제에서 농업인과 관련 단
체, 농기계 업체 관계자 및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개막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운주
현 시의장 등 주요 내빈 50여명이 참
석해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는
농업기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박람회보다 45
개 업체가 증가한 전국 238개 우수
농기계 업체에서 392개 기종을 전시
해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시부스에는 과수, 경운·정지기,
농산가공기계, 농업바이오·비료·
농약·종자·육묘기계, 수확용 기계,
시설원예·하우스·관수자재, 파종
기 및 최첨단 ICT융복합 농기계 시
설·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수도작·
전작·과수·축산·시설원예 분야의
다양한 농업기계를 전시하여 농업인
들은 우리나라 농업기계분야의 발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농업
인 상호간에 농업 정보도 교환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특히 참관객들을 위한 임시주차장
을 마련하고 전시장까지 셔틀서비스를
운영하여 참관객들의 이동 편의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관람객들의 동
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안한 관람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전시
장을 배치하여, 박람회장을 찾은 지
역주민과 전국 각지 농업인 및 농기
계업체 관계자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관광홍보관, 기업유치 홍
보관, 귀농귀촌 홍보관에는 상담 및
문의로 종일 분주했고, 농특산물 홍
보관, 먹거리 장터에도 많은 관람객
이 몰렸다.

박람회 관계자는 "개막 당일부터
최신형 농기계에 대한 문의가 쇄
하고 구매계약 건수가 어느 박람회
보다 많아 성공적인 박람회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오
는 8일까지 열린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방자치 경쟁력 인정 받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군 단위 4위

완주군이 지방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4위를 기록하면서
전국 으뜸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
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북의
위신을 세웠다. 완주군의 상위 5위권
내 진입은 5년 연속이다.

5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전국 226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분석
해 발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
력지수(KLCI)'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
국 군 단위 전체의 종합경쟁력 평균
인 441.11점을 크게 웃도는 총 515.45
점으로 전국 군 단위 4위에 선정됐다.
각 부문별로 완주군은 인적자원, 도
시인프라, 산업기반을 조사하는 '경영
자원' 부문에서 군 단위 4위를, 인구

활력, 복지, 문화, 공공안전, 시민의식,
경제성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경
영성과' 부문에서 군 단위 9위를 기
록했다. 이는 완주군이 민선7기 '소득
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를 군정목표로 삼고 완주군의 미래
성장 토대를 닦는 것에 매진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완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
는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
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
을 거머쥐기도 했다.

대도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열약
한 군 단위가 도시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완
주군은 안전, 사회복지, 문화, 인구,
경제, 환경, 교통, 주민참여활성화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
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벽골제 야간경관조명 설치

대표 관광지인 벽골제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벽골제 관광지 내 생태연못, 테
마연못, 소나무 동산, 소테마 공
원, 터널 등 관광지 곳곳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연출하고 있으며,
어둠이 내리면 벽골제 전체가 빛
으로 피어나는 정원을 연상시키
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은 매일 밤 6시 반
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간대는 누구나 무료로 벽골
제를 입장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드림 가족 가을 문화체험' 행사 진행

김제 드림스타트(과장 신미란)는 5
일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 가족 가을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나들이를 선물하기 위해 마
련된 이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원·식물
원 등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어
머니는 "일상생활에 치여 아이와 야
외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서 "모처럼만에 가족들이 모여 아이
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자주
마련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만 12세 이하 영유
아·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건강·복
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4일 혁신도시 약취 모니터단이 지자체와 함께 공원 내 산책로와 인근 체육공원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혁신도시 약취모니터단 환경정화활동 실시

완주군, 전북도, 전주시 환경부서 관계자 등 참여

전북혁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
된 혁신도시 약취 모니터단이 지
자체와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벌였
다. 5일 완주군은 지난 4일 전북
혁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혁신
도시 약취 모니터단과 전북도, 전
주시, 완주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을 포함한 30여 명이 혁신도시 지
사물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원 내 산책로와 인근
체육공원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혁신도시 약취 모니터단은 혁신
도시 아파트 16개 단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약
취 시간대와 약취종류, 약취강도
등을 매일 혁신도시 약취모니터링
정보를 SNS에 입력, 행정기관에 정
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청과 혁신도시 인접 시·
군에서는 모니터단의 신고에 따라
가족농가와 가족분노처리장에 미
생물 약취제거제 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혁신도시 약취저감
을 위해 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
군이 협업해축산시설 밀폐, 탈취
시설 설치 및 축산약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에 총 172억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혁신
도시 약취발생일수는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
신도시 약취모니터요원 20명이 매
일 약취발생 유무에 대해 모니터
링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월
평균 무취일수가 3일 증가한 15일
이었고, 유효약취발생일수 또한
1.8일로 3일 감소했다.

권혜경 완주군 약취모니터 요원
대표는 "혁신도시 약취저감을 위
해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
시가 협력해 약취가 점차 개선되
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모
니터 요원들도 혁신도시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혁
신도시 약취저감 등 환경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